

증권사, 해외 자본과 동맹 확대… ‘대체투자’ 새 먹거리 부상

KB증권 아폴로 전략적 협력 강화
인수금융·크레딧 딜 공동 주선 추진
삼성증권 테마섹 계열 손잡고 협력
아젤리아 중심 사모펀드 공급 확대
한투 칼라일과 해외 크레딧 독점 판매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와 손잡고 먹거리 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다. 글로벌 운용사의 아시아 확장 전략과 국내증권사의 자본·상품 다변화 수요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28일 아폴로그룹 지주사인 아폴로 글로벌메니지먼트와 전략적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폴로는 글로벌 인수금융을 포함한 우량 크레딧 딜에 대해 KB증권에 국내 독점주선권을 부여하고, 아폴로 펀드가 참여하는 해외 크레딧 딜과 관련해 KB증권에 공동 투자와 국내 주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KB증권은 자사가 주선하는 국내 인수금융에 대해 아폴로에 참여 기회를 제



지난 28일 KB증권 본사에서 (앞줄 왼쪽부터)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와 매튜 미켈리니 아폴로 아시아태평양 대표 및 (뒷줄 왼쪽부터) 양현종 IB2그룹장, 강진두 경영기획그룹장, 메이링 림 아폴로 캐피탈 솔루션 아시아태평양 대표, 이재현 아폴로 한국 대표가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공할 전망이다.

이날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매튜 미켈리니 아폴로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아폴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 운용사 중 하나로, 특히 글로벌 사모대출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했다”며 “KB증권은 아폴로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주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에서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해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주선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계열의 세비오라그룹과 세비오라그룹 산하 사모펀드(PE) 자산운용

사인 아젤리아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체투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투자 상품들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증권은 양사의 협력으로 국내 기관과 고액자산가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사모펀드 전략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다양한 글로벌 사모펀드 전략에서 아젤리아가 지닌 뛰어난 역량과 국내 프라이빗 웰스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삼성증권의 자산관리 역량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와 차별화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은 “이번 협력은 국내 투자자들이 글로벌 공동투자 및 세컨더리 전략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모펀드 상품을 경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운용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대체투자 상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올해 5월 블랙스톤의 대표 사모대출펀드 국내 독점 공급을 비롯해 에이리스, EQT, 누버거버먼, CVC 등 글로벌 최상위 운용사들의 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대체투자 상품 라인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칼라일그룹과 손잡고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칼라일그룹은 1987년 미국에서 설립된 PEF로, 운용 자산(AUM)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약 4530억달러(약 630조원)다. 한국투자증권은 연간 약 40억달러 규모의 칼라일 해외 크레딧 상품을 국내 독점 판매하고 있다. 칼라일 조성펀드에도 3억 달러를 투자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금까지는 글로벌 금융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1단계를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주요 글로벌 파트너들과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2단계로의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글로벌 금융 상품을 지속해 공급하겠다”고 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투운용 “TDF, 급락장서 진가 드러낸다”

‘TDF 알아서ETF포커스’ 3주년
설정액 5193억·순자산 8115억 달성
AI 반도체, 산업 중심축으로 평가
은퇴 후 인출 전략 중요성도 강조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5일 오전 장중 3900선 아래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패닉 장세를 연출하던 같은 시각,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오늘 같은 날에도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게 타깃데이트펀드(TDF)입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한국투자TDF 알아서ETF포커스펀드’ 출시 3주년 세미나에서 “호황기에는 답답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이 침체하거나 폭락할 때 진정한 실력이 드러난다”며 “TDF는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사장은 “요즘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투자자들이 방향을 잃고 있지만, 결국 시간을 이기는 투자가 진짜 실력”이라며 “TDF는 시장의 급변 속에서도 자산이 무너지지 않게 설계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투자TDF 알아서ETF포커스 시리즈 3주년’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그는 “나 역시 개인 포트폴리오의 20%를 TDF로 운용한다”며 “테크주 같은 성장자산과 TDF를 섞으면 버블이 터져도 죽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된다”고 말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로 삼아 자산배분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생애주기형 펀드다. 젊을 때는 주식 등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채권 등 안정 자산의 비중을 높인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TDF 알아서ETF포커스펀드’는 여기에 ETF(상장지수펀드)를 결합해 글

로벌 분산투자를 실현했다.

2022년 10월 출시된 이 펀드는 설정액 5193억원, 순자산총액 8115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3년 기준 위험 대비 수익률(샤프지수) 1위를 기록하며 업계 내 장기성과를 입증했다.

최근 시장을 달고 있는 ‘AI 버블론’에 대해서도 배 사장은 “AI 대표 기업들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0~30배 수준으로 결코 과도하지 않다”며 “AI 반도체 기업들은 부를 창출하는 산업의 중심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철도 붐 때 철강을 판 카네기가 돈을 벌었듯, AI 시대의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퇴직 후 자산인출 전략과 포트폴리오 설계에 관한 실무 세션도 이어졌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는 ‘인출기 연금 투자 방법’을 주제로 “시장 상황에 맞춰 인출액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가드레일 전략’이 필요하다”며 “목적별 자산을 구분해 운용하는 ‘버킷 전략’을 병행하면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찬진, ‘벨기에 펀드’ 피해자 직접 면담

〈금감원장〉

“배상기준 다시 따지겠다”
불완전판매 땀 재조정 지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벨기에 펀드’ 피해 민원인을 직접 만나 “소비자들이 100%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금감원이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장이 민원 창구에 직접 앉아 피해자와 대면 상담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벨기에 펀드’ 및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인들과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일정은 금감원 임원진이 직접 민원을 청취하는 ‘민원상담 데이(DAY)’의 첫 순서로 마련됐다.

이날 상담에는 벨기에 펀드 피해자 단체의 김화규 회장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벨기에 펀드의 가입자로, 투자설명서 핵심 정보 누락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벨기에 펀드는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기관이 임차한 오피스 건물 임차권에 투자했다. ‘임대율 100%’와 ‘안정적 수익’을 내세웠지만 금리 급등과 현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매각에 실패하면서 전액 손실이 났다. 피해 규모는 약 900억 원, 관련 민원은 120여 건에 달한다.

이 원장은 “현장감사 결과 불완전판매나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이미 처리된 건을 포함해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3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매주 수요일 임원 12명이 직접 민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이 직접 소비자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보호 문화를 기관 전반에 뿌리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신한투자증권, 중개형ISA 잔고 2조 돌파

신규고객 11만명·자산 5700억↑

신한투자증권의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총 잔고가 2조원을 돌파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중개형ISA 신규 고객 수가 약 11만명 증가하고, 자산은 약 5700억원 유입되면서 총 잔고 2조원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10월 기준 중개형ISA의 투자자산 구성은 상장지수펀드(ETF)(46%), 주식(32%), 예수금(11%), 환매조건부채권

(RP)(4%), 채권(3%), 파생결합증권(2%), 펀드(1%) 비중이다. ETF와 주식을 합한 비중은 78%로, 이는 국내 주식 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 추구 및 적극적인 재산증식 계좌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중개형ISA의 성장은 처음ISA 서비스, 시뮬레이터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연중 지속되는 중개형ISA 특관상품 제공 및 다양한 이벤트가 배경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밸류업 ETF 1조 돌파… 상승세 ‘가속’

거래소,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
밸류업지수 78% 급등 ‘역대 최고’

지난달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밸류업지수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8%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에 따르면 밸류업지수는 지난달 말 기준 1687.27로 올해

들어서만 77.8% 오르며 최고치를 새로 썼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인 71.2%를 6.6%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3개 종목의 순자산총액도 1조원으로 지난해 11월 4일 최초 설정액 4961억원보다 102.2% 증가했다.

현재까지 밸류업 공시 기업은 총 167곳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

닥시장 각각 128곳, 39곳이다.

지난달에는 코스닥 상장사 제이브이엠이 예고 공시를 제출했으며, ▲롯데쇼핑 ▲iM금융지주 ▲세아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롯데하이마트 등은 주기적 공시(이전 공시에 대한 이행평가 포함) 제출했다. 10대 그룹 중에서는 롯데와 현대차그룹이 이행공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그룹은 전년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밸류업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